

2026
올림포스
문학

2026 올림포스 상고 1. 고대 가요와 향가 01 | 공무도하가, 제망매가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임(백수 광부. 화자의 남편)아, 그 물(이 작품은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화자와 임의 단절’, ‘이별’, ‘슬픔’ 등의 의미를 지님. 1행의 ‘물’은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 ‘사랑’ 등이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함. **물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건너지 마오(임에 대한 만류)

▶ 1행: 임이 물을 건너려는 것을 만류함.

임은 끝내 그 물(이별의 원인)을 건너셨네(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넌.)

▶ 2행: 임이 물을 건넌.

[물(사별의 원인)에 빠져 돌아가시니]([: 사랑하는 임이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된 화자. **화자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3행: 임이 물에 빠져 죽음.

가신 입을 어찌할꼬(설의적, 영탄적 표현. 체념적 어조.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체념을 드러냄.)

▶ 4행: 화자가 입을 잃고 체념함.

「**공무도하가(관련 배경 설화를 <보기>로 하여 이 글의 감상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

생사(生死) 길은(삶과 죽음의 길, 죽고 사는 길)

예(여기, 이승 / ‘가는 곳’, ‘미타찰’과 대조적임.) 있으며 머뭇거리고(생사 문제에 대한 고민, 두려움)

[나(화자의 죽은 누이)는 간다]([: 누이가 했으면 했던 말을 인용함, 작별 인사)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애통함, 안타까움)

▶ 기(1~4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어느 가을(쓸쓸한 분위기 조성) [이른(요절: 젊은 나이에 죽음) 바람(‘잎’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 죽음, 시련, 가혹한 운명)](누이의 요절.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알 수 있음.)에

이에 저에(여기저기) [떨어질(죽음 / 하강적 이미지) 잎(누이, 생명)처럼]([: 누이의 죽음 / 직유법)

[한 가지(같은 부모 → 화자와 대상이 혈육 관계임을 알 수 있음.)에 나고

가는 곳(저승) 모르온저(모르겠구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 안타까움)

▶ 서(5~8행):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아아(10구체 향가의 특징: 낙구의 첫머리를 감탄사로 시작함. → ①시상의 전환 및 마무리 ②정서의 집약 / 시조의 종장의 형식에 영향을 줌.) [미타찰(彌陀刹)(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정토 → 불교적 세계관)에서 만날 나(화자 / 3행의 ‘나’와 구분할 것)]([: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

▶ 결(9~10행): 불교적 구도를 통한 재회의 소망

「제망매가」

2026
올림포스
문학

2026 올림포스 상고 1. 고대 가요와 향가 01 | 공무도하가, 제망매가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찌 할꼬

「공무도하가」

(나)

생사(生死) 길은
예 있음애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제망매가」

변형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물’의 의미 변화를 통해, (나)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임과의 이별을 담담하게 수용하며 슬픔을 절제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종교의 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혈육과의 사별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 ⑤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변형 문제

2. <보기>는 (가)와 관련한 배경 설화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할 때 찾을 수 없는 내용은?

<보기>

고조선 때 뱃사공 광부(廣夫)가 새벽에 배를 저어 가는데 백수 광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던 그의 아내가 말렸지만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후(箜篌)를 타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자 좌절감으로 인해 자신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 ① 임이 물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애틋한 마음
- ②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물을 건너는 임의 모습
- ③ 임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을 목격하는 화자의 모습
- ④ 임을 잃은 슬픔을 악기 연주로 달래려는 화자의 행동
- 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탄식과 체념적 태도

변형 문제

3. <보기>의 구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 [1~4행]
- B: [5~8행]
- C: [9~10행]

- ① A에서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이, C에서는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 ② B에서는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누이의 요절(夭折)이라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A의 '나'는 화자가 인용한 죽은 누이를 가리키고, C의 '나'는 누이와 재회하기 위해 불도를 닦을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군.
- ④ A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 앞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을, B에서는 누이를 잃은 슬픔과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C는 10구체 향가의 특징인 낙구(落句)에 해당하며,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시 전체의 정서를 집약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군.

4. (가)의 중심 소재인 '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임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이자 임의 죽음을 초래하는 비극적 공간이다.
- ②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임과의 재회를 기대하게 하는 희망적 공간이다.
- ③ 1행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2행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며 의미가 변모한다.
- ④ 화자가 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는 영원성의 공간이다.
- ⑤ 인간의 유한한 삶과 자연의 무한한 순리를 대비시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공간이다.

5.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이 '물'을 건너려는 것을 말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임이 결국 '물'을 건넌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 ③ 임의 죽음을 확인하고 슬픔과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임을 따라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 ⑤ 임의 부재라는 상황에 대해 직설적이고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6. <보기>는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죽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는데, _____와/과 같이 표현하여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① 요절한 누이를 '이른 바람'에, 죽음의 운명을 '떨어질 잎'
- ②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화자와 누이를 '가는 곳 모르는 잎'
- ③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생사 길'에, 불교적 이상 세계를 '미타찰'
- ④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를 '떨어질 잎'에, 누이를 죽게 한 운명을 '이른 바람'
- ⑤ 허무한 인생을 '한 가지'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른 바람'

7. (나)에 나타난, 죽음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이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깊은 좌절 감에 빠져 있다.
- ②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 ③ 누이를 죽음으로 이끈 초월적 존재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이성적인 자세로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며 운명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
- ⑤ 누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삶의 무상함을 극복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8~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찌 할꼬
 「공무도하가」

(나)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제망매가」

8. (가)와 (나)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임의 선택을 존중하며 체념하는 반면, (나)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거부하며 현실을 부정한다.
- ② (가)의 화자는 임의 부재에 절망하며 슬픔에 머무르는 반면, (나)의 화자는 재회를 다짐하며 슬픔을 극복하려 한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며 삶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초월적 세계를 소망하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인다.
- ⑤ (가)의 화자는 직설적으로, (나)의 화자는 우회적으로 대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한다.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물’이라는 단일한 소재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나)는 다양한 자연물에 빗댄 비유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② (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분출하는 어조가, (나)는 감정을 절제하며 승화시키는 어조가 두드러진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 속에서 ‘이별’은 중요한 제재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다룬 작품들은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는 이별의 슬픔과 한(恨)을 절절하게 토로하며 정서적 비극성에 머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 믿음이나 재회에의 소망을 통해 초극(超克)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 ① (가)는 임과의 사별에서 느끼는 슬픔과 한을 절절하게 토로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향을 보여 주는군.
- ② (나)는 ‘미타찰’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초극하려 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향을 보여주는군.
- ③ (가)의 ‘물’과 (나)의 ‘이른 바람’은 모두 화자와 사랑하는 대상을 이별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 ④ (가)의 “어찌 할꼬”는 이별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나)의 “기다리겠노라”는 이별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군.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② ㉡: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 ③ ㉢: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 ④ ㉣: 한 부모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한다.
- ⑤ ㉥: 시적 화자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20.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대화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ㄷ. 계절적 표현을 활용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ㄹ. 대조적 시어를 통해 시적 대상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21~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찌할꼬

「공무도하가」

(나)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겁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제망매가」

21. (가)에서 화자가 임에게 건너지 말라고 만류하는 대상이자, 결국 임이 빠져 죽게 되는 비극적 공간을 상징하는 시어를 쓰시오.

22. (나)에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화자와 누이의 혈연관계를 비유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23. (나)에서 화자가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불교적 이상 세계를 가리키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24. ㉠에 집약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슬픔’, ‘체념’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할 것.

27.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조건>

- (가)는 ‘절망’, (나)는 ‘극복 의지’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25. ㉡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밝힐 것.
- ‘요절’, ‘죽은 누이’, ‘인생의 무상감’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할 것.

O/X 문제

28. (가)의 화자는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처음부터 체념하고 바라보고 있다. (O / X)

29. (나)는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이라는 비유를 통해 누이의 요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O / X)

26. (나)의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 9~10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것.
- ‘미타찰’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할 것.

30. (가)와 (나)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O / X)

31. (나)의 화자는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말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O / X)

32. (가)의 화자는 슬픔에 머무르는 반면, (나)의 화자는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O / X)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가)는 임이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물’이 결국 임이 빠져 죽는 공간으로 변하며 시상이 전개된다. (나)는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앞’이라는 하강적 이미지에 비유하여 표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화자는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라며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슬픔을 절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③ (나)는 ‘미타찰’, ‘도 닦아’ 등의 시어를 통해 종교적으로 슬픔을 승화하려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가)는 임의 죽음 앞에서 ‘가신 임을 어찌할꼬’라며 체념하고 있을 뿐 종교적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한 가지에 나고’라는 구절을 통해 혈육(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가)의 ‘임’은 남편인 백수 광부를 의미하므로 혈육과의 사별이 아니다.

⑤ (가)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떨어질 앞’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활용하며, 청각적 이미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2. 정답 ④

(가) 시에는 화자가 임을 잃은 슬픔과 체념을 노래하는 내용은 있으나, <보기>의 배경 설화에 나타난 것처럼 ‘공후’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슬픔을 달래는 구체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는 노래 자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1행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에서 임이 물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

② 2행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에서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이 물을 건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③ 3행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에서 임이 물에 빠져 죽는 비극적인 상황을 화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행 ‘가신 임을 어찌할꼬’에서 임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3. 정답 ④

(나)의 A(1~4행)에서는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어찌 갑니까’라고 말하며 누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B(5~8행)에서는 ‘떨어질 앞처럼 / 한 가지에 나고 /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표현하며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와 B에 대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1~4행)에서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C(9~10행)에서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 /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며 불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이겨내고 재회를 소망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준다.

② B(5~8행)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이른 바람’에 비유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누이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매력적인 오답]** A(3행)의 ‘나’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말이며, C(9행)의 ‘나’는 불도를 닦아 누이와 재회하려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⑤ C(9~10행)는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인 낙구에 해당한다.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하며,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며 시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4. 정답 ①

‘물’은 임이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공간이지만 임이 끝내 건넌으로써 이별과 단절의 공간이 되고, 결국 임이 빠져 죽는 비극적 공간이 된다.

② 화자의 소망이 좌절되고 임과의 영원한 이별이 확인되는 절망적 공간이다.

③ 1행의 ‘물’은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사랑을, 2행의 ‘물’은 임과의 이별을 상징한다.

④ **[매력적인 오답]** 임과의 사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영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할 뿐, 자연의 순리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5. 정답 ④

화자는 “가신 입을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체념을 드러낼 뿐, 화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시 안에서 찾을 수 없다. 화자의 죽음은 배경 설화에만 나타나는 내용이다.

- ① 1행에서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며 입을 만류하고 있다.
- ② 2행에서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라며 임과의 이별에 절망하고 있다.
- ③ 4행에서 “가신 입을 어찌할꼬”라며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시 전체적으로 입을 만류하고, 슬퍼하고, 한탄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난다.

6. **정답** ④

‘떨어질 잎’은 젊은 나이에 죽은 누이를, 그 잎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초래한 가혹한 운명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 ①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떨어질 잎’이 누이를 상징하므로 대상이 바뀌었다.
- ② ‘한 가지’에서 난 존재가 화자와 누이이며, ‘가는 곳 모’르는 ‘잎’은 죽은 누이를 가리킨다.
- ③ ‘생사 길’과 ‘미타찰’은 비유적 표현이라기보다 죽음과 이상 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⑤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뜻하며, 화자와 누이가 혈육 관계임을 상징한다.

7. **정답** ②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무상감(1~8행)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노래하며 불교적 믿음을 통해 재회를 소망하는 자세로 승화하고 있다.

- ①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죽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
- ③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격정적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담담하게 수용하기보다 ‘머뭇거리고’, ‘어찌 겁니까’ 등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⑤ 누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8. **정답** ②

(가)의 화자는 “가신 입을 어찌할꼬”라며 체념하고 슬퍼할 뿐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나)의 화자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며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① (가)의 화자는 임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건너지 마오”라며 만류했고, (나)의 화자는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죽음을 인식하고 슬퍼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절규에 가까운 슬픔을, (나)의 화자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므로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초월적 세계(미타찰)를 통한 극복 의지는 (나)에서만 나타난다.
- ⑤ 두 작품 모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9. **정답** ④

(나)는 이승(예)과 저승(미타찰)의 공간적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지만, (가)에서는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는 ‘물’이라는 공간의 의미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는 ‘물’의 상징성을, (나)는 ‘바람’, ‘잎’, ‘가지’ 등의 비유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② (가)는 “어찌할꼬”라며 절규하는 반면, (나)는 “기다리겠노라”라며 의지를 다지는 어조를 보인다.
- ③ (가)의 “가신 입을 어찌할꼬”, (나)의 “못다 이르고 어찌 겁니까”에서 설의법을 통해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가)의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와 (나)의 ‘떨어질 잎’은 모두 죽음을 암시하는 하강적 이미지이다.

10. **정답** ⑤

(가)는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체념을 노래하며 정서적 비극성에 머무르므로 전자의 경향에 해당한다. 슬픔을 극복하거나 희망으로 전환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만이 후자의 경향에 해당한다.

- ① (가)는 임의 죽음을 막지 못한 슬픔과 한탄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 ② (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극락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며 슬픔을 이겨내려 한다.
- ③ (가)의 ‘물’은 임이 빠져 죽는 공간이며, (나)의